

병원노련 95년 투쟁평가 및 96년 투쟁방향

신 동 택(전국병원노동조합연맹 조직국장)

병원노련은 95년 임·단협 및 의료민주화투쟁의 목표를 94년의 투쟁(제도개선 공동요구, 공동투쟁, 공동교섭 추진 등)을 계승·발전시켜 나가면서 (의료)산별노조 건설의 조직적 전망을 열어 나가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의료시장 개방과 의료자본의 치열한 경쟁, 노동운동에 대한 정권 및 자본의 탄압 등 주변 정세의 변화 속에서 창조적인 (의료)산별노조 건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제기된다.

- 기업별노조 극복을 위한 공동요구(임금, 제도개선, 의료개혁 등), 공동교섭, 공동활동·투쟁을 어떻게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인가?
-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병원노조들간의 편차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조직의 밀바탕인 현장조직·투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인가?
- 특히 연맹중앙과 지역본부의 통일성과 지도력·집중력을 어떻게 높여 갈 것인가?

95년투쟁의 평가기준은 위의 과제를 얼마나 성과 있게 달성했는가 하는 것이고 이러한 평가에 근거하여 이후 산별노조 건설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96년투쟁을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병원노련 95년 투쟁준비

1) 95년 정세

UR타결과 함께 의료서비스가 95년 1월부터 개방되면서 외국의 의료자본이 본격적인 진출 채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재벌 산하 병원(현대: 서울중앙병원, 대우: 아주대병원, 삼성: 삼성의료원, 한진: 인하병원 등)이 신설·증축하고 있으며, 대학병원들도 대형화를 추진하는 등 병원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병원측은 경쟁적으로 신 경영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임시직, 계약직, 용역, 파트타임 등이 증가하고 있고 노동강도도 강화되고 있다. 한편 대병원파의 경쟁에서 패배한 중소병원의 휴·폐업, 지방 이전 등으로 중소병원 노조활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더욱이 95년 정부와 자본은 세계화 이데올로기 공세를 통한 임금억제 정책, '신경영' 공세를 통한 노동강도의 강화, 한국통신공사노조를 비롯한 노동운동에 대한 탄압, 노사 협조주의 강요 등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했다. 이러한 노동탄압정세 속에서 병원노련은 다음과 같은 투쟁목표와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여 95년 투쟁에 임했다.

< 병원노련 95년 투쟁 목표 >

- 1) 산별노조의 조직적 전망을 열고 민주노총 건설에 함께 하는 투쟁
 - 공동교섭전술 확대
 - 산별노조 건설준비 구체화
- 2) 조직력·지도력 강화
 - 단위노조 현장조직·투쟁력 강화(간부 활동력 강화,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활동·투쟁)
 - 연맹중앙 및 각 지역(특성)공투본의 집행력 강화 및 단위노조 간부들의 결합 강화
- 3) 임금인상 및 노동조건의 통일성 확대
- 4) 의료민주화 실천과 제도개선, 고용안정 확보

< 병원노련 공동요구안(임금, 단협, 제도개선 공동요구안) >

1) 임금인상 요구

- ① 총액 기준으로 15%이상의 임금인상
- ② 인상내역은 기본급 비중을 높이고 정액의 비중이 많아야 하며 직종간 · 규모간 · 남녀간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2) 제도개선 등의 공동요구

- ① 해고노동자 원직 복직
- ② 의료보험 통합일원화와 필수적 의료서비스 급여 확대
- ③ 고용안정 보장
 - 불법용역의 철폐, 용역노동자의 정규직화
 - 임시직, 용역직, 시간제노동자 채용 때 조합과 사전합의, 3개월 경과 후 정규직 전환, 인원정리(감원) 및 하도급(용역) 전환 때 조합과 사전 합의
 - 폐업, 업종전환, 분할·합병·양도 때 조합과 사전합의, 의료관련 법상의 정원확보
- ④ 국민연금 등 각종 기금의 관리 및 제도개선

2) 병원노련 95년 투쟁준비 개괄

병원노련 소속 총 131(지부 포함 146개 노조)개 노조 중 105개 노조(약 80.2%)가 상반기에, 그 외의 노조들은 하반기에 교섭에 돌입하였다. 105개 노조 중 62개 노조(서울 지역본부 14개, 인·부천지역본부 6개, 지방공사의료원노동조합협의회 27개, 부산지역 본부 5개, 대구·경북지역본부 7개, 가톨릭의대노조, 안양중앙병원노조, 계묘병원노조 등. 조합원은 20,600여 명으로 병원노련 소속 전체 조합원의 약 60% 정도)가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고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준비하였다. 병원노련은 95년 투쟁방침, 전술기조, 공동요구안 준비 등을 위하여 지역본부 운영위원회, 각 단위노조 간부 설명회, 교육 간담회, 조합원 분임토의·간담회, 설문조사, 간부공동수련회 등을 착실하게 진행시켜 나갔다.

또한 공동대응을 위한 공투위 지역본부(경기, 전북, 전남, 경남, 충청, 강원)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운영위원회의 정례화 및 공동수련회, 투쟁결의 등반대회 등 다양한 공동활동을 통해 95투쟁을 준비하였다.

2. 병원노련 95년 투쟁의 성과와 한계

1) 공동요구(임금, 제도개선, 의료개혁 등)

전국 병원노동자의 공동요구(임금, 제도개선, 의료개혁 등)는 병원노조 조합원의 기업별 의식을 극복하고 사회의식을 높여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다. 또 공동요구는 교섭 범위 확대(경영참가 요구의 발전 등)와 함께 병원노조운동의 사회적 역할을 높여 나가는 활동·투쟁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요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합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한 공동요구가 준비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동력을 밑천으로 해야만 공동요구가 위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공동요구의 성과적인 측면

① 약 76개의 노조(약72%)가 공동요구안을 제출하였으며 이후 교섭에서 제도개선 공동요구안에 노사가 합의한 경우는 51개에 달했다(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에 대한 노사합의는 병원자본측이 연맹에 대해 가지는 부담, 즉 노조의 힘의 우위에서 비롯되는 성과이며, 노조의 요구가 도덕적·사회적인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뜻한다).

② 94년부터 시작된 공동요구가 2년차를 지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운동으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③ 의료개혁·사회개혁요구를 단체교섭 요구안에 포함함으로써 조합원들이 관심을 가졌고, 높은 교육, 선전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제도개선 공동요구안에서 요구항목의 수를 줄였는데 이는 투쟁을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전술적인 효과가 있었다.

(2) 공동요구의 문제점 및 과제

① 조합원의 구체적인 요구에 기초한 공동요구가 부족하였다. 그리고 노조가 환자, 보호자와 함께 하면서 의료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사용자와 합의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안이 부족했다.

② 대각선교섭, 개별교섭에서 제도개선을 요구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있다. 의료개혁운동에서는 개별교섭을 통한 노사합의도 필요하겠지만 공

동투쟁, 대사회적인 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는 일이 중요할 것이다. 94년에는 대국민 선전전이 강조되어 추진되었던 반면 95년에는 조합원, 환자, 보호자에게 치중된 측면이 강했으며 사회적 활동과 투쟁이 부족했다.

③ 노사합의는 했지만 후속작업이 부족하다. 이후 의료개혁 투쟁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일상적 활동·투쟁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2) 공동교섭

공동교섭은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기 위하여 공동요구와 함께 공동활동,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여 병원노동자의 통일·단결을 고양시킴으로써 (의료)산별노조 건설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유효한 전술이라 할 수 있다.

(1) 공동교섭의 성과

① 공동교섭의 확대로 (의료)산별노조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공동교섭을 진행한 곳이 94년에는 3개 공투위 45개 노조였는데, 95년에는 5개 공투위 62개 노조로 늘어났다. 94년에 공동교섭을 수행한 서울지역본부와 인천·부천지역본부, 지방공사의료원노동조합협의회 뿐 아니라 대구, 부산 등이 공동교섭·공동투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② 공동교섭 과정에서 각 단위노조의 지역(특성)본부와 연맹중앙으로의 결합력이 강화되었다. 95년 공동교섭을 통해 각 단위노조와 연맹중앙·지역본부 간에 상호 이해가 깊어짐으로써 지역본부와 연맹중앙으로의 결합력이 강화되고 있다.

③ 공동교섭에서 해고노동자 6명의 원직복직에 합의하고, 고용안정조항을 확보하였다. 올해는 특히 김유미, 차수련 위원장의 원직복직 등 해고자 복직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경희의료원노조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이화의료원 노조는 정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④ 단위노조의 공동화 현상이 개선되었다. 94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교섭력이 높아졌고, 단위노조의 공동화현상도 많이 극복되었다.

(2) 공동교섭의 한계

① 공동교섭 2년차에 걸맞는 깊은 연구와 내용의 준비가 부족했다. 공동교섭·투쟁을 통해 생취해야 할 각 조직의 구체적 목표 수립, 교섭형태와 교섭전술 개발, 역량 검토 및 공동교섭 범위·기준 설정 등 공동교섭에서 갖추어야 할 재반 조건과 사용자들의 대응 등에 대한 세밀한 준비가 부족하였다.

② 공동교섭투쟁 차원의 공동대웅책이 없었다. 사측의 공동교섭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연맹의 공동교섭투쟁 위에서 구체적인 대웅책이 나와야 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③ 올해 처음 공동교섭을 시작한 대구·경북지역본부와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지난 해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예상되는 문제점들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준비를 하도록 연맹측의 지도·지원이 필요했으나 부족한 점이 많았다. 특히 대구지역의 영남대병원노조의 교섭·투쟁 과정에서 병원노련 공동교섭에 대한 사측의 정면도전(교섭대표 참가, 교섭위원 자격, 공동요구안에 대한 시비 등)에 대한 집중적인 투쟁대책이 부족하였다.

④ 집단교섭의 구체적인 목표, 투쟁수위, 대각선교섭으로의 전술전환 방침, 대각선교섭에서 분리타격 및 힘의 집중문제, 공동투쟁전술 적용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과 교섭단구성의 문제 등에 대한 세부적인 전술방침이 부족하였다.

⑤ 공동교섭과정에서 교섭에 너무 의존하는 모습도 있었으며, 일부 지역본부 및 조직에서는 여전히 지도력·집행력의 부족이 노출되었고, 단위노조의 공동화 현상이 힘 있게 극복되지 못하였다.

3) 공동투쟁전술에 대하여

(1) 공동투쟁의 성과적인 측면

① 3, 4, 5, 6월 의료개혁활동과 함께 대국민 선전전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다.

② 민주노총 6월 시기집중 방침은 주효했다. 병원노련이 6월의 전국적인 꽁투전선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6월 말로 투쟁을 집중함에 따라 병원측에 상당한 압력을 가할 수 있었다

③ 올해 정부와 자본의 '무분규 소동' 가운데서도 서울지역본부의 소자보투쟁, 무기한 교섭대기투쟁, 서명, 총회전야제 총결집투쟁 등 새로운 투쟁전술이 많이 개발되었다. 부산지역본부의 경우 연대투쟁 때 꽃 달아주기, 쿄코파이 전달식, 대남병원노조의 쌀 모으기 등이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 광주·전남, 전북본부의 경우 천막농성투쟁을 벌였는데 효과적인 전술이었음이 드러났다.

④ 영남대의료원노조 파업투쟁은 직권중재, 공권력투입으로도 병원노조의 투쟁을 막

을 수 없다는 교훈을 남긴 끈질기고도 완강한 투쟁이었다.

(2) 공동투쟁의 한계

① 대국민선전(3월, 4월, 5월, 6월)을 실시하였으나 94년 투쟁에 비해 집중적인 활동과 투쟁이 부족하였다. 의료개혁과 관련한 대사회적인 공동집회투쟁 뿐 아니라 병원 협회에 대한 공동대응도 부족하였다.

② 올해는 전체 민주노조 진영과 일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중소병원들은 시기집중을 하지 못했고, 대구·경북지역본부의 경우도 6월 집중투쟁에 조합원들이 제대로 참여하지 못했다.

③ 신경영전략, 협력적 노사관계 조성, 그리고 조직력이 취약한 노조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 등 사용자측의 교묘한 탄압에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투쟁전술이 필요하다.

④ 공동대응 공투위체계로 투쟁을 추진한 지역본부(경기, 광주·전남, 전북, 충청, 경남, 강원)들의 경우 지리적, 조직적으로 어려운 여전에서도 공동대응·공동활동을 활발히 벌였다. 그러나 연맹중앙과 지역본부의 집중력, 지도력이 부족하였으며, 특히 공동대응공투위의 조직과 투쟁에서 일정한 편차가 생기기도 하였다. 조직활동의 편차에 대한 극복 대책이 준비될 때 산별노조 추진에 힘이 실릴 것이다.

⑤ 연맹 중앙본부 및 지역(특성)본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몇 가지 한계점이 드러났다.
- 먼저 단위노조 조직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이 부족하였으며, 공동교섭, 공투체계, 중소병원의 분리에 대한 세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단위노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리고 투쟁 전술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점검과 방침이 부족하였다. 연맹중앙본부와 지역(특성)본부의 통일적인 지도력, 집중력과 함께 단위노조에 대한 과학적인 방침이 필요하다.

- 초기 단계에서는 중앙공투본 상황실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구성되고 순조롭게 활동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연맹중앙 상황실의 다수가 교섭위원으로 참여함으로써 공동화 현상이 생겨나 중앙 집중이 어려워져 갔다. 연맹 상황실은 정세를 진단하고 투쟁과 관련한 정책과 투쟁전술을 고민해야 하는데, 지난 해와 같은 '투쟁대책반회의'가 심도 깊게 논의되지 못한 채 보고만 받고, 총괄하여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은 잘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다.

- 당면 사안을 전국적 투쟁으로 만들어 가는 사업이 힘차게 전개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전국 연대전선 형성이 어려웠다(직권중재와 관련하여 연맹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지만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투쟁을 벌이지는 못했다. 공공부문 노조와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 등 공동대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3. 병원노련의 96년 투쟁과제

1) 96년 투쟁방향

(의료)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96년 투쟁은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개하면서 연맹중앙본부와 지역본부의 통일적 지도력을 강화하여 기업별노조를 극복하고 병원노조운동의 희망인 (의료)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주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2) 96투쟁의 과제 – 산별노조 건설 준비를 위하여 !

(1) 조합원의 요구에 기초한 공동요구안을 마련한다

전체 병원노동자의 공동요구인 고용문제, 인력확보, 주차장, 환자보호자 편의시설 등을 실현할 수 있는 병원제도 개선안과 전체 의료개혁 과제를 마련한다. 그리고 각 지역, 특성단위에 맞는 요구안(대학병원, 중소병원, 공기업, 국공립병원, 지역병원 등)도 연구·준비한다. 요구안의 준비·확정과정이 조합원의 참여를 높이고 의식을 향상시키는 과정이 되도록 한다.

(2) 공동교섭을 강화한다

① 공동교섭의 의의

공동교섭은 기업별노조 극복을 위한 공동요구와 함께 공동활동, 공동투쟁을 활성화하여 산별노조 건설 준비를 위한 유효한 전술이라 할 수 있다. 교섭전술이 기업별노조 극복을 위한 활동과 투쟁에 얼마나 기여하는가가 전술 활용의 주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② 병원노련 공동교섭의 강화

96 공동교섭 투쟁에서는 힘을 집중함으로써 사측의 공동대응에 대해 기선을 제압해 나가야 할 것이다. 연맹 전체의 공동교섭 범위 및 기준에 대해 연맹중앙집행위원회 및 각 조직단위에서 충분한 사전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교섭권을 위임한 노조의 경우 일정한 기준 및 규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연맹 전체의 공동교섭 범위 설정은 첫째 조건과 특성(시기, 임금, 규모, 지역 등), 둘째 지역(특성)본부의 지도·집행력 준비정도(공동교섭단 구성, 투쟁준비 역량 등), 셋째 단위노조의 준비정도 및 의지, 넷째 공동의 활동 및 투쟁경험 등을 기준으로 연맹중앙과 지역(특성)본부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단위노조 교섭권 위임 기준 및 규율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이 중요하다.

- 투쟁준비기에서 마무리까지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연맹지도부와 논의하고 그 방침을 따른다.
 - 단위노조의 공동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단위노조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준비한다.
 - 주요한 결정(요구안 준비, 교섭권 위임, 투쟁 마무리 등)은 반드시 조합원의 토의 또는 결의과정을 거친으로써 조합원이 주체가 되는 투쟁을 만들어 나간다.

(3) 96년 공동 준비활동과 함께 공동투쟁을 활성화한다

- ① 지역(특성)본부 공동요구안 마련(지역본부 차원의 요구안 준비팀 구성 등) 및 공동준비활동(지역·특성본부의 공동수련회, 공동선전·홍보 등) 활성화
- ② 전국적인 공동활동·투쟁을 위한 투쟁결의 등반대회, 의료활동 및 대국민 선전전의 강화, 공동의 집회 및 시위투쟁의 활성화 등 다양한 단체행동의 개발
- ③ 시기집중 : 96년 투쟁에서는 각 단위노조의 조직강화에 기초하여 세밀한 조직적 준비와 함께 힘있는 시기집중 투쟁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 ④ 공익사업체노조(지하철노조, 한국통신노조, 택시노조 등)들과의 연대를 통한 직권 중재의 부당성에 대한 대국민 선전전(공청회, 대국민 선전·홍보, 포스터·스티커 부착 등) 강화 및 노동법 개정투쟁(민주노총 차원의 공동투쟁)

(4) 전국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병원노조간의 편차를 극복하고 조직의 밀비탕인 현장 조직과 투쟁력을 강화한다

- ① 지역본부 조직·투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연맹 차원에서 앞선 경험을 가진 지역본

부의 활동·투쟁을 타 지역본부로 전파한다.

② 간부일꾼의 육성·조직화로 공동활동·공동투쟁 및 산별노조 건설의 주력부대를 준비한다(월례 강좌, 교양지 발간, 주간통신, 노동교실, 다양한 교육활동 등).

③ 단위노조 간부일꾼의 육성과 조직활동 활성화(상집·대의원·열성조합원의 교육, 강좌, 토론 등) 및 신경영전략으로 인해 나타나는 제반 문제(비정규직 확대, 인력축소, 노동강도 강화 등)에 대비하여 대의원 단위의 다양한 현장활동체계를 활성화한다. 그리고 단위노조의 조직현황에 기초한 구체적인 조직강화를 목표로 하여 96년 투쟁을 준비한다.

④ 단위노조 현장조직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 지역본부·연맹 전체의 공동활동·투쟁을 준비한다. 특히 모범적인 지역본부나 단위노조의 사례에서 교훈을 찾도록 하며, 병원노조 전체의 과제인 의료산별노조 건설의 관점에서 공동활동, 공동투쟁을 더욱 의식적으로 벌여 나간다.

(5) 연맹중앙과 지역본부의 통일성과 지도력·집중력을 높인다

① 중앙공투본부(중집)의 투쟁체계와 지도력을 강화한다.(공동투쟁단위의 조직 체계화-공동교섭 공투위, 공동대응 공투위체계 등)

② 연맹중앙공투본 및 상황실 역할분담의 체계화 - 투쟁노조에 대한 집중대책 등
(특히 각 단위노조 조직상황에 대한 깊은 분석을 통한 투쟁방침 준비 및 전술지도체계의 강화)

③ 각 지역(특성)본부의 공동활동, 투쟁 지도·지원 강화

④ 공동과제에 대한 공동투쟁 조직화, 중요한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방침 준비

⑤ 각종 정책 및 상황에 대한 공유 자료준비 등